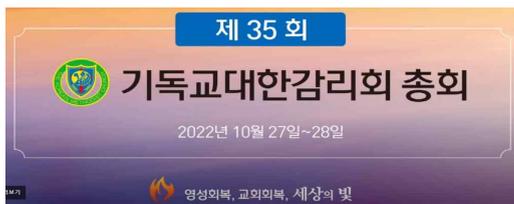


광야의 소리(2022.11.8.)

유다광야에서 단련받은 세례자 요한은 '왕의 길'을 준비하도록 '회개'를 촉구했다.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, 스스로 자정능력 조차 없다고 조롱받고 있으니, 이른바 '세상이 걱정해 주는 좀비신세'로 전락하고 있는 지 우려스럽다. 다만, 지금도 우리 곁에는 살아 숨쉬는 생명들이 있으며, 역사의식으로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있다고 믿기에, 소위 교단본부의 '공무원'들을 향해 '준마가편(駿馬加鞭)'의 심정으로 아래 의견을 개진코저 한다.

첫째, "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"는 틀린 표기이다!

☞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미 '총회개념'을 내재된 교단명칭이며, 총회는 교인전부가 아닌, 대의원들로 구성되는 '정기총회', '임시총회', '입법총회'뿐이다.



기독교대한감리회
제35회 정기총회

둘째, '총회 회의자료집'은 표기가 잘못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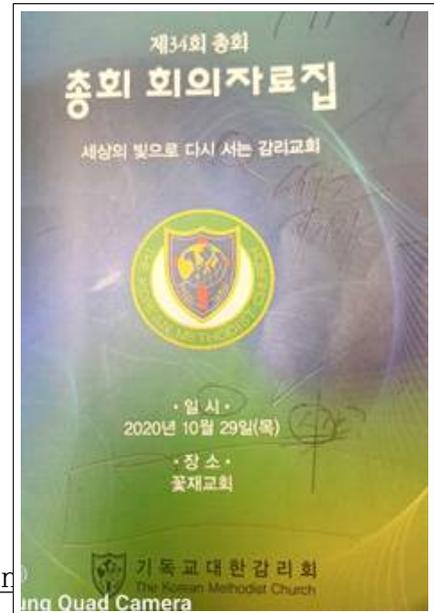
a. 총회주체가 "기독교대한감리회"임에도, 교단명이 실종되었다.

b. "제00회 총회"라는, '소속불명'의 명칭만 표기되었다.

c. 자료집의 발행 주체는 '기독교대한감리회'로 되었으나, 실상 총회개념으로 표기할 수 없는 이유는, 아직 총회가 개회 이전에 발행된 책자이기 때문이다.

총회가 닫힌 기간에는, 실행위가 의결권을 대신하므로, 감리회본부/총회실행위원회가 발행책임부서가 된다.

d. 총회 회의자료집이란, '정기총회 안건 및 보고자료집'이라야 적당하다. 그 이유는, 통상 '총회'는 Conference/Synod 개념이고, 회의의 내용은 '기독교대한감리회 정기총회'이며, 회의는 r) 책 제목과 내용과 전혀 다른 까닭이다.



셋째, 두 개의 서로 다른 로고가, 동일한 페이지에서 버젓이 사용되었다. 두 개 기관은 동일한 주체가 아니라는 의미일까?

글쓴이/송성모 010-4044-8291 통영, 풍화교회담임